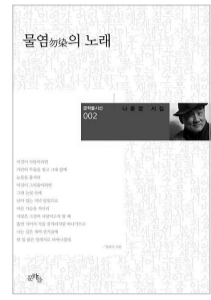


“시대와 세상 앞 ‘물염의 詩’ 이기를”

광주 출신 나중영 시인 23년만에 세번째 시집 ‘물염의 노래’ 발간 불의한 시대 향한 외침·자연 예찬 26일 5·18기록관서 출판 기념회



“내 글이 시대와 세상 앞에 ‘물염(勿染)의 詩’이기를 희망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시집 제목이 묵적이다. ‘물들지 마라’는 뜻이 죽비처럼 다가온다.

광주 출신 나중영 시인이 23년 만에 세 번째 시집을 펴내 눈길을 끈다.

최근 인터뷰에서 시인은 “시인으로서의 삶, 다시 말해 시인으로 잘 살았는지 그것의 물음에 자신 있을 때 창작집을 펴내자는 생각을 했다”며 “물론 지금도 그것에 대한 명징한 답을 내기에는 어려우나 더 이상 시인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며 시집을 펴낸 이유 등을 전했다.

서글서글하면서 인상 좋은 이미지의 시인은 올해 고희(70)를 맞았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인생 칠십 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했다. 사람이 일흔까지 사는 것은 드물다, 라는 뜻이다. 나 시인도 마음은 청춘이지만 가뭇없이 지나버린 세월이 덧없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이다.

시집 제목의 모티브는 화순의 대표 농정 물염정에서 차용했다. 조선시대 사헌부 감찰 ‘물염 송정순’이 당쟁의 광풍에 환멸을 느끼고 관직에서 물러나 초야에 정자를 은거했다.

이번 창작집의 제목이 은유하는 것은 ‘물염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나 시인은 “그동안 나는 시



나중영 시인

를 쓰는 사람보다도 한 사람 ‘시인’으로서 시대를 살아오기를 염원해 왔다”며 “사물과 사람에 대한 사랑, 겸손, 겸애와 더불어 이 휘절의 시절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정자에 가서 이렇게 읊었다. “그대는 홀로 어디쯤 달고 있는가?”, “세상 어느 곳에도 물들지 않는 물염적벽에/ 그대는 칼끝을 세워 정풍 바람 소리를 새기고/ (‘물염정에 가서’)라고 노래하며 참다운 길이 무엇인가를 되뇌인다.

시인으로 그를 각인시킨 창작집은 지난 1981년 창작과비평사 13인 신작시집 ‘우리들의 그리움은’이다. ‘5월시 동인’으로 활동하며 불의한 시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을 특유의 울림 있는 시로 풀어냈다.

이후 두 권의 시집 ‘끝날내 너는’, ‘나는 상처를 사랑했네’를 펴냈다. 긴 침묵 속에서도 그는 시심을 버리지 않았다. 시어를 붙들고 있었고 많은

시들을 창작했다. 단지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이번 발간 시집도 600여 편에서 고르고 고른 작품들이다.

김형중 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는 “나중영의 시집 곳곳에서 반짝이는 저 수많은 것들은 일종의 사리다. 물론 그것은 오래 묵고 버린 말(言)로 된 사리다”라고 평한다.

나 시인은 ‘문학적 환경’에서 성장했고 ‘문학적인 생활’을 했다.

“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함평, 장성, 강진 등으로 초등학교를 옮겨 다녔어요. 여러 고을의 자연과 지리, 풍습을 체험할 수 있었죠. 후일 이런 체험은 문학을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인, 소설가를 배출한 광주고에서 문예반 활동을 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죠.”

이번 작품집의 스펙트럼은 넓다. 사회를 향한 뜨거운 목소리를 담은 시 외에도 풀, 나무, 꽃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시들도 있다. 인간사 회로에 락을 진술한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도 눈에 띈다.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력이 말해주듯 그는 삶 속에서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본부장까지 근무하며 정년퇴직을 했다. ‘시인’과 ‘은행’ 다소 어울리지 않는 관계처럼 보인다.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실한 일상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의 삶 외에도 지역 문학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도 매달렸다. 80년대 초 광주민중문화연구회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며 광주·전남작가회의, 순천작가회의의 출범을 견인했다. 무엇보다 지난 2005년 지역 최초 종합문예지 ‘문학들’을 지역 문학인들과 창간해 지금까지 통권 76호를 발간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시집 출판을 기념하는 출판회가 오는 26일 오후 4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문제아들의 음악 치유기 ‘나를 노래해’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작 뮤지컬 26일 공연마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작 뮤지컬 ‘나를 노래해’를 공연하는 모습.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공>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을 위한 초청 행사를 앞두고 음악회를 준비하는 ‘나중심’. 그는 콘서트에 반 아이들을 훈련시켜 강제로 내보내려 한다.

음악 전공 이력을 과시하는 나중심은 아이들의 취향, 의견과 관계없이 유명 클래식을 선정해 연습 시킨다. 한 시도 거만히 있지 못하는 유진이를 비롯해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로 골머리를 앓는다.

중심은 제자이자 음악가인 하늘을 불러 ‘특별 훈련’을 시키려 한다. 중심은 아이들과 의견을 조율해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나를 노래해’를 오는 26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펼친다.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이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창작 뮤지컬이다.

극 중 새로 온 음악코치 하늘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한다. ‘음악 아지트’를 만들고 아이들의 마음을 음악

으로 표현하게 한다. 하지만 중심이 아지트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위기에 처한다.

‘노래하는 작은 새’를 비롯해 ‘왜? 왜? 왜?’, ‘귀 기울여 봐요’, ‘내가 꿈꾸는 건’, ‘어퍼컷!’ 등 총 12곡의 넘버를 만날 수 있다. 함께 부르는 칼 젠킨스 곡 ‘팔라디오’ 중 1악장 ‘알레그레토’, ‘디즈니 OST 메들리’도 울려 퍼진다. 바이올린 연주에 조세운, 안지유, 비올라 한소명 및 첼로 한소진. 이 외 소프라노는 최은서·김지유 학생 등이 최시연·김은영 등이 메조소프라노, 박세준·송의로 등이 알토를 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권기원 상임지휘자는 “이번 공연은 음악으로 치유하고 하나 되는 ‘청소년’들의 꿈 이야기를 다뤘다”면서 “합창부터 아카펠라, 노래와 춤, 발랄한 연기가 결합된 공연을 통해 아이들과 하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우리 소리’로 영·호남을 잇다

전남도립국악단 ‘국악이음’ 26일·11월16일 무안 남도소리올림픽

각 지역별 토리와 유파 등 차이가 있는 까닭에 전통예술은 ‘교류 공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색 있는 시김새와 선법을 나누면서 발전의 계기 삼을 수 있다는 연유에서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이 교류공연 ‘국악이음’을 오는 26일, 11월 16일 오후 4시에 무안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에서 펼친다. 사람과 사람, 국악과 전통을 연결한다는 취지로 경상북도도립국악단, 광주시립창극단과 협연할 예정이다.

경북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박경현)과 함께하자는 26일 무대는 진유림류 입춘소고 ‘행화지무’로 시작한다. 아름다운 맨손 춤과 가락을 결들인 소고춤으로 흥을 돋우는 이 곡은 진유림류 특유의 내

적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다. 이어 단막창극 ‘뽕파전’, 타악 앙상블 ‘타인공감’ 등 지난 그린국악 시즌에서 펼쳤던 대표 가무악회 작품들을 선보인다. 유장영이 편곡한 남도 뱃노래 ‘여명’, 이용탁이 작곡한 국악 관현악 ‘뫼’도 무대에 오른다.

다음 달 16일에는 ‘전변문화’라는 주제로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박승희)이 단독 공연을 펼친다.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태평무’를 비롯해 창작 창극 ‘산불’, 단막 창극 ‘개울가’를 들려준다. 대북을 위한 신명 판타지 ‘취와 타’는 북소리를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표현하는 작품이다. 대북과 타악기의 신명 나는 조화를 통해 흥겨운 울림을 남긴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교류공연 ‘국악이음’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한·중 미술 교류 지역예술가 모임

광주시립미술관, 28~29일 북경창작스튜디오 참여자

지난 2010년 시작된 북경창작스튜디오는 지역 작가의 중국 북경 파견을 매개로 한·중 미술 교류에 기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광주 문화예술 홍보관으로 임시 운영하다 2023년 말 잠정 폐쇄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두 도시 간 예술교류 재개를 위한 ‘2024 북경창작스튜디오’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작가 및 연구자(기획자) 2명(팀)이며, 선발된 인원들은 북경 스튜디오 및 거주공간과 오픈스튜디오, 다양한 형태의 결과발표를 지원받는다. 접수는 28일부터 29일까지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작가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출신 또

는 연고가 있어야 하며 영어, 중국어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기획자)는 지역 내외에서 활동하는 자로 영어, 중국어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미술관은 1차 서류접수와 2차 프레젠테이션 진행 및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작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은 “북경 창작스튜디오는 한·중 미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국제적 안목과 광주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역예술가와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참고.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